

해외구호 역량 극대화... 사각지대 밝힌 등불

2015 불교계 복지분야 결산

2015년 불교계 복지는 어느 해보다 해외구호활동이 활발했다. 네팔 대지진 참사에 불교계 NGO단체 등의 긴급구호활동과 각 종단의 구호기금 모연까지 한국불교는 한마음으로 불교국가 내팔을 도왔다. 아울러 불교계 9개 NGO가 힘을 모아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를 출범하고, 각자의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기타 국제구호단체의 활동을 장려했다. 그런가하면 창립 20주년을 맞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다시 자세를 가다듬어 대응보살의 역량을 이어갈 것을 발원했다. 또한 재단 산하 조계종자원봉사단은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단체부문 대통령표창을 받아 경경사를 맞았다. 이외에도 22년 동안 어르신들의 점심을 책임졌던 탑골공원 원각사 무료급식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뻔한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재가불자의 원력으로 미혼모생활시설을 세워 인간방성에 나선 일도 눈에 띈다. 올 한 해 불교계 복지분야 활동을 돌아본다.

네팔 긴급구호·재건사업

지난 4월 25일 네팔에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인해 2만5000명에 달하는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조계종·진각종과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지구촌공생회·더프라이스 등은 선발대를 현장에 급파해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긴급구호활동을 전개했다. 불교계는 1차 구호활동 이후 대대적인 네팔 돕기 모금을 벌이며 장기적인 교육시설 재건사업 계획을 세웠다. 이 같은 소식을 불교계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모금전문기관인 아름다운동행에만 22억7000만원에 달하는 기금이 모였었다. 아름다운동행은 기금을 바탕으로 지진피

해지역 학교 재건에 나설 계획이다. 더불어 지구촌공생회도 예산규모 10억 원의 '스무고개 스무학교' 사업을 통해 네팔에 20개의 학교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엔 모연된 네팔 돕기 기금에는 유치원생과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들이 모은 용돈, 병원환자들이 보낸 정성까지 네팔을 응원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더해졌다.

한편 불교계는 이에 앞선 3월 한국불교 국제개발협력협의회를 출범했다. 총 9개 불교계 NGO단체가 연합한 협의회는 실무자 교육, 사업 노하우 공유, 신규활동가 발굴·양성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해외 공동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조계종복지재단 창립 20년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복지재단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1990년대 초 불교계 사회복지시설은 전체를 통틀어 90여 곳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100여 곳으로 늘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이웃을 돌보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 가운데 조계종복지재단은 산하시설 190여 곳을 운영하며 상구보리 하회중생을 실천하고 있다. 불교자원봉사·국제개발 및 재난구호·복지정책연구·교육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한국사회복지계 전반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아울러 조계종복지재단 산하 조계종자원봉사단은 12월 4일 열린 '2015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20년간 이어온 봉사 공적을 인정받아 단체부문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경경사를 맞았다.

탑골공원 무료급식 계속된다

지난 3월, 22년간 탑골공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펼쳐온 원각사 주지 보리 스님이 건강악화로 급식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하루 평균 2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찾는 급식소는 무주상보시를 실천하는 포교의 산실이었다. 이 같은 안타까운 소식이 교계에 알려지자 심곡암 주지 원경 스님이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를 역임한 원경 스님은 평소에도 불교계 복지활동에 큰 관심을 갖고 있던 것으로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지구촌공생회의 네팔 지진 피해지역 식수 지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창립 20주년 시상식, 미혼모가족 지원시설 도담하우스 개원식, 원경 스님의 탑골공원 무료급식 재개.



원경 스님이 이끄는 '인간방성' 원력 '인간방성'의 원력을 세운 어느 재가불자의 보살행이 외롭게 세상과 맞서 살아가는 미혼모들을 품었다. 이때 (사)개달음과나눔 이사장은 지난 10월 서울 마천동에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 '도담하우스'를

알려졌다. 스님은 원활한 무료급식소 운영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원각복지회'를 설립했다. 심곡암 신도들도 실시일만 무료급식소를 후원하면서 배식봉사에 동참해 탑골공원을 찾는 어르신들에게 온정을 베풀고 있다.

어느 재가자의 '인간방성' 원력

'인간방성'의 원력을 세운 어느 재가불자의 보살행이 외롭게 세상과 맞서 살아가는 미혼모들을 품었다. 이때 (사)개달음과나눔 이사장은 지난 10월 서울 마천동에 미혼모자 기본생활시설 '도담하우스'를

개원했다. 서울 시내 불교계가 운영하는 한 부모복지시설은 도담하우스를 포함해 총 세 곳이지만 종단 차원이 아닌 개인의 원력으로 설립한 곳은 도담하우스 뿐이다. 이때 옥 이사장은 기존 다세대주택을 매입해 1층은 사무실로, 나머지 층은 미혼모가족을 위한 시설로 꾸몄다. 특히 미혼모자 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반발을 없애고자 옆 건물까지 매입했다. 월 3000만원의 운영비를 혼자 충당하고 있는 이때 옥 이사장은 1년간의 운영평가를 거쳐 정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호섭 기자**

NGO공모사업 11개 단체 1억 원

아름다운동행 주최, 네팔 비구니 승원 복원사업 눈길

아름다운동행이 내년도 NGO 및 복지단체 지원사업 공모에서 11개 단체를 선정, 총 1억 원을 지원한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12월 18일 '2016 NGO 및 복지단체 지원 공모사업' 선정기관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지원분야는 △소외계층 지원 △환경지원 △국제개발 및 구호 △기획지원 등 4가지로 구분됐다. 이 중 국제개발구호 분야에 지원한 NGO단체 젊은부처들의 '네팔 비구니 승원 복원사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이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3000만원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지진피해가 심하지만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 가난한 지역이라 복구가 늦어지고 있는 마을의 공용시설을 재건하는 사업이다. 젊은부처들은 시제 최필령과 투제 칠령 공동체를 지원대상으로 선정, 지역공동체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물질적 지원을 하는 한편, 한국불교의 국제협력 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사회복지관의 '농촌지역 저소득가정 아동회복탄력성 강화프로그램-넘어져도 괜찮아'도 1000만원의 지원금이 확정돼 눈길을 끈다. '회복탄력성'은 다양한 역경과 실패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이 튀어 오르는 마음의 탄성을 의미한다. 증평복지관은 이 사업을 통해 농촌 저소득가정 청소년들의 자존감·의사소통능력·대인관계 향상 등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치유의 순례(전북불교네트워크 1000만원) △우울우울한 행복쟁이들의 합창(칠원지역아동센터 1000만원) △실버부림(원주가톨릭종합사회복지관 1000만원) △미심의 날개를 달다! 보리공방(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1000만원) △사찰음식조리 및 창업교육을 통한 협동조합으로 창업하기(미추홀공덕회 900만원) △동네방네 전래놀이(광주해바라기지역아동센터 650만원) △화가 자란다(종로노인종합복지관 450만원) 등이 공모사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됐다. **윤호섭 기자**

"장애·비장애인 구분 없이 행복하길"

연화원, 수화사랑음악회 및 후원의 밤

연말을 맞아 문화생활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장애인을 위한 음악회가 열렸다.

사회복지법인 연화원(대표이사 해성)은 12월 1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2015 수화사랑음악회 및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사진〉행사에는 청각·시각·지체·지적장애인을 비롯해 후원자 및 자원봉사자, 지역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져 편견을 내려놓고 문화생활을 누리자는 목표 아래 기획된 수화사랑음악회는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이번 음악회는 △체재공연 △리뷰 강(스포츠타레너 손리) △이삼스님 대금연주 △수화사랑합창단 수화 △삼진·지혜·능인·정행 스님의 음성공양 등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졌다.

연화원은 또 음악회에 앞서 열린 축하마당에서 점차 〈묘법연화경〉 권4를 한국 시각장애인복지회에 전달했다. 연화원은 그동안 〈지장경〉·〈금강경〉·〈보현행원품〉 등의 경전을 점자로 제작하는 한편 음



성녹음경전도 보급해왔다. 점자경전 전달식 이후에는 총 3000kg의 자비의 쌀을 저소득 장애인가정에 전달하고, 장애인 자녀 장학금을 6명에게 지원했다. 공연장 밖에서는 연화직업재활원 장애인들이 직업적응훈련을 통해 만든 압화공예품을 전시·판매하며 자존감을 높였다.

이날 연화원 대표이사 해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수화사랑음악회는 수화를 통한 우리들의 자비의 손길이 천리만리 울려 퍼져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갈 발원하는 희망과 행복의 음악회"라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sonico027@hyunbul.com**

작은 결혼식 확산 위한 불교계 포럼

조계종복지재단,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주제

지난 4월 불교·개신교·가톨릭·원불교 등 4대 종교와 여성가족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하기 위해 '작은 결혼·가족행복 더하기 프로젝트' 협약을 맺은 가운데 불교계가 작은 결혼식 확산을 위한 포럼을 열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12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과 가족까지 확산정책에 대한 조망'을 주제로 12월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했다. 여성가족부와 협약 이후 작은 결혼식을 주제로 한 포럼은 불교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선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설문조사에 따르면 결혼문화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제기된 것은 '형편에 맞지 않는 과도한 혼수'였다. 이로 인해 형편에 맞는 혼례문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실속있는 소규모의 당사자 주도 결혼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

대 남성이에서 두드러진다"고 강조했다.

이선민 부연구위원은 "결혼적령기 사람들은 결혼과정에 필요한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를 원한다. 이는 곧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정보제공, 예식장소 대여, 결혼관련 물품 대여, 결혼자금 융자 지원 등을 의미한다"며 "불교계가 어느 정도 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중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장은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 관련 사업현황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과장은 "결혼식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자체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 예식장 발굴에 힘쓰고 있다"며 "무료 주례 재능기부와 결혼부담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4대 종교와 협력해 홍보하고 있다. 종교지도자들이 나서 혼례교육, 서명운동, 종교시설 개방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호섭 기자**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